

## 국내 소행성 탐색 시작하다.

천무영<sup>1</sup>, 변용익<sup>2</sup>, 한원용<sup>1</sup>, 김승리<sup>1</sup>, 문흥규<sup>1</sup>, 강용우<sup>2</sup>, 유성렬<sup>2</sup>,  
박선엽<sup>2</sup>, 신종섭<sup>1</sup>, 김호일<sup>1</sup>, 한인우<sup>1</sup>

<sup>1</sup> 한국천문연구원

<sup>2</sup>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

20세기가 아마추어 천문가에 의해 새로운 혜성이나 소행성들이 발견되던 시대라면 21 세기는 전문적인 천문학자에 의해 새 천체들이 발견되는 시기이다. 망원경 제어(전자공학) 및 자료 처리 기술 발전(컴퓨터 공학), 특히 CCD 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광검출기의 발달로 인해 전천을 훑으면서 움직이는 천체를 발견하고, 그 좌표를 측정하는 일이 가능해졌다.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 아리조나대학의 SPACEWATCH 프로그램으로부터 최근 소행성의 지구충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SPACEGUARD 재단까지 전지구적으로 많은 소행성 및 혜성에 관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.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천문연 기관고유사업으로 출발하게 된 NEOPAT21, 수년전부터 착실하게 하드웨어 등을 준비한 변광성 전천 탐색을 위한 YSTAR, 금년 6월부터 시작하게 된 인공위성 및 지구접근천체 감시연구 국가지정연구실 이 3개의 과제가 협력하여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소행성 전천 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. 본 발표에서는 기존의 망원경을 이용한 시험 관측 방법 및 그 결과, 그리고 본격적인 탐사를 위한 현재까지 진척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.